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5 : 지독한 허무

“제폭구민! 보국안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외침이 정읍 전체를 가득 메웠다. 황토현 전투의 값진 승리에 고취 된 동학농민군들은 입을 모아 여덟 글자를 외치며 죽창을 들어올렸다.

농민군의 전력을 무시한 관군의 대가는 컸다.

전라 감영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을 지휘하던 영관 이경호는 조총부대의 총탄에 의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며,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관군은 봉준과 개남의 죽창부대로 인해 파죽지세에 몰려 전멸하다시피 했다.

한마디로 대승이었다. 거의 농민들만으로 구성 된 부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전략적이었으며, 한참 모자라는 화력을 이용해 전세를 뒤집은 뜻 깊은 전투였다.

후발대로 치고 내려온 화중의 부대는 적진의 신식무기를 탈취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접주님! 이대로 전주성꺼정 치고 올라가시죠잉!”

“우리 동학군의 전력을 지대로 보여줘야지라!”

며칠간의 행군으로 쌓였던 피로감도 잊은 듯 각성된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간 정부로부터 당한 울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쉬이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는 동안 현세는 꾸물거릴 틈도 없이 ‘자객’ 남자로부터 알아낸 나머지 첩자들을 전부 잡아들였다. 가치를 다한 부품은 버려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나, 그건 동학의 교리와 맞지 않았다.

“현세 네가 잘 구슬려 봐. 다만, 죽여서는 안 돼. 알겠지?”

이제 현세의 주가는 거의 우량주까지 치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조총부대를 이끈 현세의 활약상은 봉준의 입에서 화중의 입으로, 마무리는 개남의 입을 통해 수천 명의 농민군에게 전해졌다.

현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말거만 주세요, 봉 형.”

갑작스레 오라를 받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입만 떡 벌리고 있었다.

“우,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현세는 눈을 번뜩이며 냉랭하게 대꾸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봉 형의 명령을 속으로 되뇌면서.

“어찌기는 뭘 어째. 농민군에 몸담은 이상 노선을 바꾸든지, 아니면...”

“웃기시네! 차라리 죽여!”

첩자1의 발악에 현세는 비릿하게 웃으며 팔짱을 껴다. 입가는 웃고 있는데 눈매는 펍 매서운 것이 종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겼다. 과연, 첩자들의 얼굴근육이 부자연스럽게 꿈틀거렸다.

“그럼 죽든가. 너희들 머리를 죽창에 꽂아 매달고 다녀도 볼만하겠어. 조금 무겁긴 하겠지만, 뭐.”

이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행하는 악취미 중 악취미였다. 현세는 그런 꼴을 볼 때마다 무척 역겨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반찬삼아 협박을 가하며 신나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순간, 첩자2가 부들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이이! 미친놈이! 역당 주제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응, 두렵지 않아. 그건 사후세계의 나에게 말기련다. 자, 모가지 잘릴 준비는 됐고?”

열 명 남짓한 남자들의 얼굴이 흠뻑으로 물들었다. 저 놈의 눈깔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것이, 필시 우리들 목을 잘라 죽창에 꽂고도 남을 듯했다. 첩자들 중 하나는 바지춤에 지도까지 그렸다.

현세는 이때다, 싶어 꺾 말아 쥔 주먹에 엄지만 세워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 예상대로 그 행위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아, 알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제발 그, 그... 죽창에 꽂는 그 짓만은 말아다오!”

“좋아. 나는 배신자 따위는 취급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은 ‘노동력 제공’ 쪽으로 힘써 주면 좋겠어.”

이만하면 너그러운 벌이라고 볼 수 있었다. 사실 현세는 그들이 열 받아서 피를 토하는 꼴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감영군을 무찌르기는 했다면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이여. 한성의 장위영이 관군을 이끌고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야.”

봉준의 정보통에 따르면, 한성에서 남하중인 신식 정예부대는 독일제 야포와 마우저 소총, 회선포 2문으로 무장한 상태라고 했다. 거기다 저기 청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출신 용병도 포함이었다.

현세는 이따위 외세의 오지랴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체 지들이 뭔데 남의 나라 내부분쟁에 개입을 한단 말이야? 정부도 그랬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판국이면 썩은 살부터 도려낼 생각을 해야지, 멀쩡한 팔다리까지 왜 자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이지 잘 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지금은 1승을 거뒀다고 여유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쫄 거 없어야! 숫자는 우리가 훨씬 많당께? 아니 그런가?!”

“그러!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디!”

화중은 들끓는 농민들의 기세를 부드럽게 가라앉혔다.

“시방 이대로 올라가든 화력 싸움에서 지고 말 것이여. 우리는 남쪽으로 퇴각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거여! 전투는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알겠는가?”

정읍 출신 대접주의 주장을 꺾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농민군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봉준의 아우인 만큼, 그 역시 뜨거운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뒤집혔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뜨겁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우린 성님들을 따를 거구먼!”

“아무렴! 오늘 승리한 것도 성님들 덕분 아니겠어?!”

“제폭구민! 보국안민! 동학농민군, 만세!”

잔뜩 도취된 분위기와는 달리, 현세는 태양신경절을 전기로 지진 듯 아랫배가 빠근

했다. 파병당시, 적진에 침투하는 작전을 펼쳤을 때보다 더 긴장감이 몰아쳤다. 감영 군에게서 빼앗은 소총이 나름 신식이기is 하나, 회선포나 야포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이런 말은 정말 싫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현세의 낯빛이 전에 없이 어두운 것을 눈치 챈 봉준은 한 걸음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너무 심려 말어라. 내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께, 너는 지금처럼 조총부대를 잘 키워서 화력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여.”

현세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친 봉준의 손등에 제 손을 겹쳤다. 따스한 온기는 가타부타 말없이도 서로의 믿음을 나누기에 충분했다.

“네..., 봉 형.”

백 프로의 신뢰로 만들어진 농민군의 단합력은 그 어느 부대보다 돈독했다.

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농민군은 정읍을 거쳐 흥덕과 고창을 점령했다. 그러는 동안 각 고을의 수령들은 공지가 빠지도록 도망치기 바빴다. 그다지 놀라울 것도 없었다.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는 슬로건을 매단 깃발이 나부낄 때마다 농민군의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그 위용을 건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을 터였다.

말 그대로 누워서 떡을 먹고,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격이었다.

현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개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장단을 맞춰주었다. 녹두꽃이 어찌고 하는 그의 음성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과 무척이나 배치되었다. 어찌나 구슬픈지, 지나치는 길썰의 들꽃들도 눈물지을 지경이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듣다 못한 현세가 한마디 거들었다.

“개남 아재, 개선포 같은 얼굴을 하고서 웬 청승이예요? 지금 봉 형 놀리는 거죠?”

개남은 그러거나 말거나 흥얼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현세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랫말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가웃했다. 음정이 뒤죽박죽이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데..., 대체 그게 어디였지?

골똘한 것도 잠시, 농민군의 퍼레이드는 무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현세는 이곳, 조선에 날아온 이후 처음으로 떨림을 느꼈던 무장현의 장시를 저절로 떠올렸다.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몇 년은 흘러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기다 이곳에는 토르를 빼닮은 하나뿐인 동생, 종이와 사모하는 그녀, 연희씨가 머무르고 있었다.

현세의 들뜸을 눈치 챘는지, 스리슬쩍 다가온 봉준이 물었다.

“이곳 무장에 끌이라도 발라 났나벼? 상판대기가 시뻘건 것이 심상치가 않은디?”

“네? 무슨?!”

현세의 어깨가 펠쩍 튀어 올랐다. 건장한 사내의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종잇장 같은 탄력에 봉준의 입가가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지. 현세는 저도 덩달아 웃고 말았다. 봉준의 외모는 시커멓게 그을린 빛깔에 험준한 산세를 닮았지만, 그가 웃을 때면 한겨울에 내리치는 눈보라도 금세 사위어질 것만 같았다. 저녁놀을 비추는 마지막 햇살 같은 따사로움이랄까.

이윽고, 남도에서 펼쳐진 장엄한 행진은 땅거미가 지고 나서야 무장에 도달했다.

현세는 달뜬 걸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한시바빠 발을 옮겼다. 현종의 보드라운 볼을 어서 빨리 쓰다듬고 싶어 손끝이 간질거렸다.

그리고 흑단같이 매끄러운 연희의 머리에 땀기를 묶어주고 싶었다. 그다지 손재주는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 무척 로맨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두에 서있던 현세는 전투에 나서지 못한 농민군과 아이들이 머무르는 근거리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무어라 단언 할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조선까지 따라온 예리한 촉은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대번에 알려주었다. 등줄기에서 흐르는 날카로운 감각이 온 몸으로 뻗어나갔다.

“봉 형, 무슨 냄새 안 납니까?”

현세는 들숨으로 말아지는 기분 나쁜 재 냄새를 언급하며 몸을 앞세웠다. 그때, 누군가가 먼저 현세를 스치고 근거리 안으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돌아볼 틈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화중 형님...? 설마!?’

현세의 머리털이 쭈뼛 섰다. 그는 지체없이 화중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연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연희밖에 머무르자 않는

데!

미칠 것만 같았다.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헉...”

근거지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있었다. 얼마나 맹렬하게 타올랐는지, 온전한 목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현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소된 곳을 헤집는 화중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비춰졌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대체 누가...”

현세는 미친 사람처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저를 따르겠다며 울부짖는 현종의 음성이 귓가를 어지럽혔다. 그것에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정말 현종의 음성인지 분간도 가지 않았다.

“나는 뭇사람 따라가든 안 되는 겨? 성 혼자 외롭잖여. 방해 안 할테니께 종이도 데려가! 성... 어흑...”

현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독한 허무만이 손끝을 간질일 뿐, 아무것도 없었다. 야속한 하늘은 연희와 작별한 그 날처럼 화려한 별꽃을 수놓은 모습이었다.

노란 저고리에 엷은 분홍치마가 무척이나 어울리는, 그런 밤이었던가.

“알고 있었어, 네가 현세가 아니라는 것쯤은. 한데, 현세야. 네가 무엇이 되었든 난 상관없어. 그저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 하면 돼.”

이쪽은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다.

현세의 시야가 하염없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렸다. 차라리 신파극이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적어도 마지막 인사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악에 받친 탄식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현세는 움짱달짝하지 않았다.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다. 그들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래, 이곳을 비워둔 사이에 불타버렸을지도 모른다!

“시, 시신을 찾았구먼! 빌어먹을! 이 악독한 새끼들아!”

"꼬아아아악!"

현세의 바람은 잠깐 스쳐가는 주마등처럼 빛을 잃어버렸다.